

# 한전, 전력그룹사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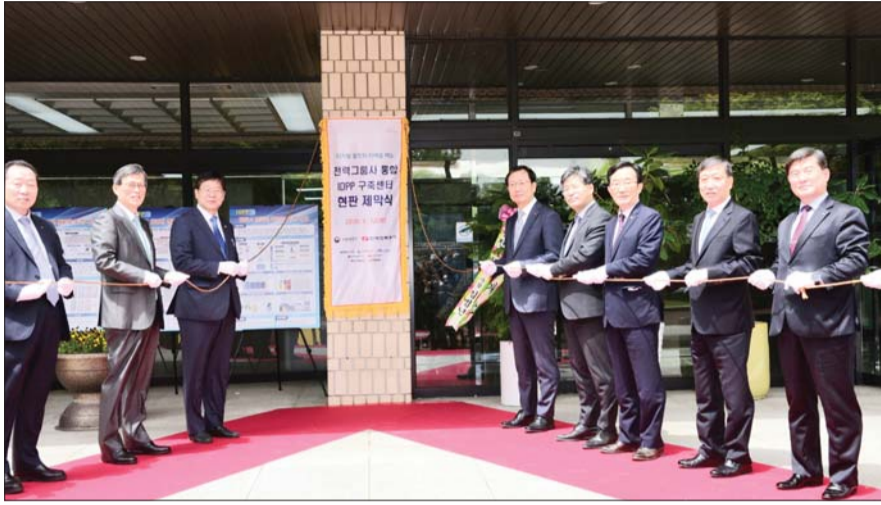
연구진-그룹사 기술인력 구성 기술 토대로 37건 특허 확보 추진 중소기업 상생협력 '에너지 기술마켓'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의 주요 기기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운영효율 극대화에 나선다.

한국전력은 12일 한전 전력연구원에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구축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등 전력그룹사는 전력연구원에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를 설치하고, 전력연구원의 연구진과 각 참여 그룹사의 기술인력으로 구성된 공동연구개발팀을 구성해 디지털 발전소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이 참석해, 공공기관 대규모 혁신 성장 과제인 디지털 발전소 공동구축 프로젝트의 혁신 성과 창출 노력에 대해 격려했다. 또한 김종갑 한전 사장과



한국전력 현판제막식

발전사 등 전력그룹사를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총 13개 공공기관 사장 및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디지털 발전소 개발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다짐했다.

개소식은 디지털변환 추진현황, 디지털 발전 기술개발 성과, 에너지 기술

마켓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에 이어 디지털 발전소 구축센터와 디지털 트윈 센터에 설치된 지능형 진단기술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2017년 4월 한전의 주도로 착수한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개발 프로젝트는 2018년 10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

관 혁신성장 대규모 협업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지난해 5월부터 전력그룹사가 참여해, 디지털 발전소 실증 및 사업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자체 개발한 디지털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전력그룹사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발전 분야 표준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발전소 운영·진단·예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4종의 진단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고, 12종 프로그램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내년 말부터 발전소 현장에 설치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37건의 특허 확보 추진 중이며, 기술이전을 통해 새싹기업 및 중소기업 육성 등 발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전은 디지털발전소 개발 프로젝트

를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발전소에 적용함으로써 최적의 운전조건과 정비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발전 효율 향상과 사고의 미연 방지 같은 산업 혁신 측면의 효과와 미세먼지 저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등 환경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발전기술과 ICT 기술이 융합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에너지 전환 및 터빈·펌프 등 부품의 수입의존 탈피를 가속화해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다양한 산업플랫폼으로 확산 적용도가 가능하다.

한편 김종갑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에너지 기술마켓은 공공기관에게는 우수 기술 확보를, 중소기업에게는 기술 확보의 장을 제공하는 상생발전 모델로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왼쪽부터) 이석주 AK홀딩스 사장, 임재영 애경산업 부사장, 박흥식 애경유화 부사장, 김이배 제주항공 부사장, 표경원 애경화학 전무

## AK홀딩스 사장에 이석주... 위기경영체제 가동 (제주항공 대표이사)

애경그룹 상반기 인사 대표이사 5명, CFO 1명 선임

애경그룹이 지주회사인 AK홀딩스 사령탑에 이석주 사장을 선임하는 등 2020년 상반기 사장단 인사를 12일 발표했다.

AK홀딩스를 비롯해 제주항공, 애경산업, 애경유화, 애경화학 등 5개 회사에 대한 상반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하며 6월 1일 자로 대표이사 5명 및 애경유화 CFO를 선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이사가 AK홀딩스 대표이사 사장으로 ▲임재영 애경유화 대표이사가 애경산업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박흥식 애경화학 대표이사가 애경유화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표경원 애경유화 전무가 애경화학 대표이사 전무로 ▲김주담 애경화학 상무가 애경유화 CFO로 이동했다.

외부 발탁으로 제주항공 대표이사에

아시아항공 출신의 항공전문가 김이배 부사장을 영입해 제주항공의 위기극복과 미래 도약을 위한 토대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장단 인사는 5명의 대표이사 및 1명의 CFO 선임 등 총 6명 규모다.

애경그룹은 5월 중 사장단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 '포스트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애경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제주항공과 애경산업을 중심으로 한 위기경영체제를 가동하기 위함이다.

항공사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아시아나 출신의 항공전문가인 김이배 부사장을 제주항공 대표이사로 깜짝 발탁했고, 현 애경유화 임재영 대표를 애경산업 대표이사로 선임해 안정적인 제품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사업의 본격 확장을 끌어낼 계획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과기정통부 ICT 솔루션 활용 챌린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활용해 국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020년 국민 생활문제 해결 솔루션 챌린지'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솔루션 챌린지'는 모바일 앱, 가상·증강현실(VR·AR), 데이터, 인공지능(AI)

I) 등 ICT 기반의 독창적인 해결책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국민의 생활불편 사항이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전이다.

정부는 불편사항이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과제로 제시하고, 민간은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ICT로 대비하는 슬기로운 포스트 코로나 생활'이 주제로 선정됐다. /채윤정 시전문기자 echo@

## 이른 더위에 유통가, 여름 준비 '속도'

냉방 가전·여름 의류 등 판매 급증 업계, 하절기 시스템 앞당겨 도입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도 전에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여름 가전과 의류 상품을 미리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이에 냉방가전과 여름 의류·화장품 판매량이 늘면서 유통가도 분주하다.

◆냉방가전·여름 의류 판매량 ↑

이베이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 육선에 따르면, 최근 2주간(4월 27일~5월 10일) 전년 동기 대비 냉방기 판매율은 90% 증가했으며, 여성 여름의류(반팔 티셔츠)는 290% 늘었다. 빨리 찾아온 여름을 대비해 다이어트 용품 판매율도 증가했다. 대표상품으로 줄넘기와 훌라후프는 각각 91%, 64% 증가했다.

G마켓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최근 2주간 이동식 에어컨 판매량은 120%, 창문형 에어컨은 52% 신장했다고 밝혔다. 올 여름이 예년보다 무더울 것이라는 전망에 냉방가전을 미리 구매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하이마트의 4월 30일 ~ 5월 6일



명동 올리브영을 방문한 고객이 선풍기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CJ올리브영

판매량을 살펴보면, 에어컨 매출액은 직전 같은 기간(4월 23일 ~ 4월 29일)보다 222% 늘었다. 선풍기 매출은 665%, 특히 서큘레이터 매출은 630% 증가했다.

◆선풍기 제품 구매 늘어

여름이 되면서 노출이 늘자 선풍기에 신경쓰는 이들도 늘었다. 올리브영에 따르면, 최근 2주(4월 28일~5월 11일), 전월 동기(3월 29일~4월 11일) 대비 선풍기 카테고리 매출이 89% 증가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트러블 관리 수요가 선풍기로까지 확대되면서 올여름 '무기자차'에 피부 진정 성분까지 더한 다기능 제품이 더욱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식품 위생 강화·하절기 시스템 가동 유통업체도 일찍 찾아온 더위에 여름 준비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여름철 식품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오는 9월 말까지 본격적인 식품위생 관리에 돌입한다. 롯데백화점은 롯데중앙연구소의 '하절기 식품관리 매뉴얼'에 따라 식품위생법에서 요구하는 기준보다 더 엄격한 수준으로 자체 위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위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신선식품 및 즉석 조리 식품에 대한 판매 시간 단축 및 판매중단을 실시하고 하절기 주 사용 설비에 대한 세척 및 관리에도 중점을 뒀다. 신세계백화점은 예년보다 3주 먼저 하절기 매장 운영에 돌입했다.

이달 11일부터 매년 6월 초에 시작했던 점포 근무 직원사원들의 '쿨비즈 복장' 도입을 약 3주 앞당겼고, 현장 지원 사원들의 근무환경도 하절기 시스템으로 변경했다. 특히 야외에서 근무하는 주차 사원들을 위해 주차장 곳곳에 이동식 에어컨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배치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회식도 온라인... 언택트 관련 앱 사용 급증

'Zoom' 월간 이용자수 25배 증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와 원격회의 등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면서 친구들이나 직장동료와의 회식도 온라인으로 하는 등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재택근무 기간이 길어지면서 화상회의 솔루션 이용자 수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2일 모바일 빅데이터 플랫폼 아이지 에이웍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화상회의 앱 줌이

최근 3개월간 매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줌의 월간 사용자 수(MAU)는 2월 7만5406명에서 4월 186만2261명으로 25배 가량 증가했다. 스카이프,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시스코 웹엑스가 뒤를 이었다. 스카이프 MAU는 2월 17만 8307명에서 4월 28만8193명으로, 구글 미트는 2월 6723명에서 4월 18만1710명으로, 팀즈는 2월 4만755명에서 4월 16만4253명으로 시스코 웹엑스는 2월 8376명에서 4월 13만771명으로 증가하



/아이지 에이웍스

는 등 줌 외에 나머지 화상회의 솔루션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구서윤 기자 yuni2514@